

항일투쟁기 한국독립당의 『震光』 발간과 한중 연대*

박 성 순**

국문초록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한국인들의 독립운동 활동을 선전하고 한중연대를 유도하기 위해 서 신문·잡지 등 여러 가지 문건들을 간행하였다. 『震光』은 1934년 1월부터 한국독립당이 발간한 공식 기관지였다. 1932년 尹奉吉 의거로 상해를 떠나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한국독립당 인사들이 杭州에 집결하여 활동을 재개하면서 발행한 기관지이다.

『震光』은 한국 독립운동의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고, 중국과의 상호 연대를 촉진코자 하는 두 가지 방략에서 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震光』의 두 가지 큰 내용 중에서도 한중연대론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였다. 본고에서는 첫째 『震光』 발간을 후원한 중국 국민당과 한독당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둘째 한중연대론에 대한 중국국민당 인사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셋째 『震光』에서 한독당이 내세운 한중연대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검토함으로써 『震光』을 매개로 추진되었던 한중 연대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국국민당은 『震光』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당 기관지를 발행하던 東南日報社 인쇄소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국민당이 『震光』 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은 한중 공동 연대가 항일 투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한독당은 한중연대가 역사적 필연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양철학적 관점에서 보아도 ‘天地必然之勢’이며, 인간의 인위적인 안배와 계획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국국민당 인사들도 한중 두 나라가 유구한 역사관계를 가진 우방일 뿐만 아니라 공동의 적인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였다.

『震光』을 통해서 일관되게 표방된 한중연대론은 한독당은 물론 중국국민당 인사들의 공통된 항일투쟁 방안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제어] 한국독립운동단체 기관지, 『震光』, 한국독립당, 중국국민당, 한중연대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震光』의 한중연대론 |
| II. 중국국민당의 후원과 『震光』의 발간 | V. 맺음말 |
| III. 『震光』 수록 한중연대론의 연원과 내용 | |

* 이 연구는 2014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 fund of Dankook University in 2014.)

** 단국대학교 강의전담조교수 / ttiger97@dankook.ac.kr

I. 머리말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한국인들의 독립운동 활동을 선전하고 한중연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문·잡지 등 여러 가지 문건들을 간행하였다.¹⁾ 그를 통해 한국독립운동의 당위성과 한중 연대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 후원세력을 결집하고자 하였다.²⁾

본고에서 다룰 『震光』은 1934년 1월부터 한국독립당이 발간한 공식 기관지였다. 1930년 1월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한국독립당은 1945년 8.15 때까지 임정을 옹호 유지하는 여당으로 활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독당은 결당 직후 최초의 기관지로 『韓報』와 그 자매지 『韓報特刊』을 발행하였다.³⁾ 그리고 이어서 『上海韓聞』·『韓聲』·『震光』·『韓國獨立黨黨報』·『通告』·『獨立評論』을 발간하였다. 『上海韓聞』은 상해에서 한독당이 발행한 주간신문, 『韓聲』은 한독당 廣東支部에서 발행한 잡지이다. 『震光』은 한독당 인사들이 윤봉길 의거 이후 상해를 떠나 항주에 집결하여 한독당의 활동재개와 더불어 발행한 기관지이다. 『韓國獨立黨黨報』·『通告』·『獨立評論』은 중경에서 결성된 한독당이 발행한 것들이다.⁴⁾

『震光』과 관련된 연구는 개별적 논문보다는 한국독립당을 다루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들이 대부분이다.⁵⁾ 그리고 『震光』이 독립기념관에서 영인되면서 「해제」가 붙었는데, 『震光』의 발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이 「해제」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⁶⁾ 그후 조범래가 한국독립당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震光』과 관련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해 한국독립당은 1934년 1월부터 새로운 기관지로 『震光』을 발행하였다. 『震光』은 국한문 혼용의 ‘국한문판’과 백화문으로 된 ‘중문판’ 두 종으로 발간되었다.⁷⁾ 국한문판의 원고는 李相一이 중문판은 趙素昂이 작성하였다. 李中煥이 식자조립을, 朴敬淳과 金思濤이 영문번역을 담당하였다. 『震光』의 국한문판은 震光社 명의로, 중문판은 한국독립당 선전부 명의로 각각 발행되었다. 그러나 震光社라는 인쇄소는 명목상일 뿐 실제로 『震光』은 항주 民國日報社에서 인쇄 간행되었다. 『震光』은 중국국민당 절강성당부로부터 매달 40원씩의 보조를 받아 발행되었고, 광둥지부로부터도 약간의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 『震光』의 발간 취지는 첫째 한

1) 韓詩俊, 「중국 관내 독립운동과 신문 잡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8.

2) 김영범, 「韓國光復軍刊行《光復》의 獨立運動論」,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7.

3) 韓詩俊, 「上海 韓國獨立黨研究」, 『龍巖車文變教授華甲紀念 史學論叢』, 新書苑, 1989, 621~622쪽.

4) 韓詩俊, 「중국 관내 독립운동과 신문 잡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8, 12~13쪽.

5) 韓詩俊, 「上海 韓國獨立黨研究」, 『龍巖車文變教授華甲紀念 史學論叢』, 新書苑, 1989; 韓詩俊, 「중국 관내 독립운동과 신문 잡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8; 조범래, 『韓國獨立黨研究(1930~1945)』,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조범래, 『韓國獨立黨研究 1930~1945』, 선인, 2011; 정병준, 「해제」,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3(한국독립당 I), 국사편찬위원회, 2009.

6) 『震光』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에서 펴낸 韓國獨立運動史資料叢書 제2집 『震光·朝鮮民族戰線·朝鮮義勇隊(通訊)』(1988)에 영인 수록되어 있다. 慎鏞廈 교수가 「收錄資料 解題」를 집필하였다.

7) 『震光』은 국한문판과 중문판 두 가지로 간행되었다. 그것은 배포 대상이 한국인과 중국인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구자들마다 이를 부르는 명칭이 약간 다르다. 慎鏞廈가 『震光·朝鮮民族戰線·朝鮮義勇隊(通訊)』(1988) 「解題」에서 『震光』을 ‘우리말本(국한문 혼용)’과 ‘中國語本(白話文 전용)’의 ‘二種’으로 구분한 이래 조범래가 이 명칭을 계승하고 있다. 한편 논자에 따라서 국문본, 한문본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 명칭의 간결성, 的性 등을 고려하여 ‘국한문판’과 ‘중문판’으로 부르기로 한다.

국민족운동의 본질과 특징에 접근하고 아울러 각국의 민족운동세력과 연합을 추구함, 둘째 한민족의 혁명운동의 역량과 본질을 우리 역사에서 찾아내 그것을 민족혁명운동, 즉 독립운동의 이론으로 정립하여 제시한다는 것이다. 『震光』은 제1호(국한문판·중문판), 제2·3호 합본, 제4호, 제6호가 간행되었다. 그리고 1935년에 제4·5호 합권의 중문판이 제작되었다.⁸⁾

『震光』의 발간 의의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몇 가지 견해가 있다. 우선 『震光』은 1932년 尹奉吉 의거로 상해를 떠나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한국독립당 인사들이 杭州에 집결하여 활동을 재개하면서 발행한 기관지이다.⁹⁾ 『震光』은 한민족 각 단체의 연합을 종용하고, 그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상호 연락 및 협력을 촉진코자 하였다.¹⁰⁾ 『震光』은 그 「緒言」과 「創刊所感」에서 그 직능과 임무를 “한국독립운동의 진상을 선전하고, 아울러 우방과의 연락을 촉진하며 나아가 협력을 도모하여 공동으로 仇敵을 없앴을 본래의 기능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¹¹⁾

『震光』은 이와 같이, 한국 독립운동의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고, 중국과의 상호 연대를 촉진코자 하는 두 가지 방략에서 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震光』의 두 가지 큰 내용 중에서도 한중연대론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검토할 내용은 첫째 『震光』 발간을 후원한 중국 국민당과 한독당과의 관계, 둘째 한중연대론에 대한 중국국민당 인사들의 입장, 셋째 『震光』에서 한독당이 내세운 한중연대론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震光』을 매개로 추진되었던 한중 연대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중국국민당의 후원과 『震光』의 발간

1. 중국국민당과 한국독립당의 우호적 관계

우익진영의 안창호·이동녕 등 민족주의자들은 상해한인반제동맹과 같은 좌익진영의 독자노선에 맞서 독자적인 정당 건설을 추진했다. 이 결과 1930년 1월 25일 프랑스조계 馬浪路 普慶里 4호 임시정부 청사에서 한국독립당이 조직되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선언」(1931.4)을 통해 임정은 독립당의 대표기구라고 선언했다.¹²⁾ 한국독립당의 黨義는 ‘혁명적 수단’에 의해 일제를 박멸하여 국토·주권을 완전 광복하고,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신민주국 건설을 목표로 했다. 黨綱에서는 민족적 혁명역량 총집중과 무력투쟁, 세계 피압박 민족과의 연대 등을 독립운동 방략으로 설정하였다.¹³⁾ 한국독립당의 당강에서 이미

8) 조범래, 『韓國獨立黨研究 1930~1945』, 선인, 2011, 307~312쪽.

9) 慎鋪廈, 「解題」, 1988, i쪽; 韓詩俊, 「중국 관내 독립운동과 신문 잡지」, 1998, 12쪽.

10) 韓詩俊, 「上海 韓國獨立黨研究」, 1989, 623~624쪽; 조범래, 『韓國獨立黨研究 1930~1945』, 2011, 311쪽.

11) 慎鋪廈, 「解題」, 1988, iii쪽.

12)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선언」(1931.4), 『한국독립운동사』 자료3(임정편 Ⅲ), 탐구당, 1973, 209~211쪽.

13) 김정주 편, 『조선통치사료』 제10권, 동경: 한국사료연구소, 1971, 698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3(임정편 Ⅲ), 탐구당, 1973, 396쪽.

『震光』의 내용이 예고된 것이다. 아래에서는 『震光』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震光』을 발행한 한국독립당과 그것을 후원한 중국국민당과의 관계를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국민당과 한국독립운동가들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우호적인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한인독립운동과 중국과의 인연은 국권피탈 직후 상해·광주 등지로 망명한 한인혁명가들에 의해 비롯되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신규식이다. 1912년 상하이로 망명한 그는 신해혁명의 주요 인물들과 교분을 확대해 가면서, 중국땅에 한국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마련하였다.

신해혁명 성공을 전후하여 중국혁명의 중심이던 상해의 혁명당원들은 陳其美가 영도하였다. 陳其美는 孫文을 도와 북경정부 袁世凱 토벌군 총사령으로 활약하였으며, 당시 상해에서 활동하던 한국·월남·인도의 혁명가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陳其美는 한국의 독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혁명지사들과 상해에서 비밀단체인 ‘신아동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이었다.¹⁴⁾

1916년 5월 陳其美가 袁世凱의 하수인에게 피살된 후 한인 지원활동은 조카 陳果夫에게 계승되었다. 陳果夫의 특별한 노력으로 孫文이 세운 황포군관학교의 1·2·3·4기 입학생 가운데는 한국학생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¹⁵⁾

1920년 광둥에서 호법정부가 수립되고 孫文이 대총통에 추대되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21년 10월 26일 국무총리 겸 외무총장인 신규식을 正使, 박찬익을 副使, 민필호를 수행으로 하여 국서를 가지고 孫文의 총통 취임식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11월 3일 손문과 회담을 갖고 임시정부의 정식승인을 요구하고 호혜조약 5개조를 제시하였다.¹⁶⁾ 신규식을 옛 동지로서 반갑게 맞이했던 손문은 임시정부가 제안한 호혜조약 5개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중한 양족은 同文同族으로서 본래가 兄弟之邦이며 유원한 역사관계가 있다. 輔車相依하듯, 脣齒相依하듯 잠시도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서양의 영·미와 같은 관계이다. 따라서 한국의 광복운동에 대해 중국은 응당 원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라는 우호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¹⁷⁾ 이후 孫文은 대한민국임시정부 駐廣州代表를 호법정부에 상주케 하여 정식으로 한중 외교상의 연락로를 갖게 하였다.¹⁸⁾

이와 같은 한중연대 관계는 1930년 1월 25일 韓國獨立黨이 결성된 이후에도 중요한 정책적 기조가 되었다. 한독당은 黨義와 黨綱에서 三均主義를 정치이념으로 삼고, 세계 피압박민족 혁명단체와의 연계 등을 내

14) 蕭錚, 「中國協助韓國光復之回憶」, 『傳記文學』 第44卷 第5期, 第45卷 第1·3·4·6期;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중국의 인식), 국사편찬위원회, 2008, 186쪽.

15) 蕭錚, 「中國協助韓國光復之回憶」, 『傳記文學』 第44卷 第5期, 第45卷 第1·3·4·6期;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중국의 인식), 국사편찬위원회, 2008, 191쪽.

16) 호혜조약 5개조는 1.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호법정부를 대중화민국 정통정부로 승인하고 그 원수와 국권을 존중할 것, 2. 대중화민국 호법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할 것, 3. 중화민국 군사학교에 한국학생을 수용해 줄 것, 4. 5백만 원을 차관해 줄 것, 5. 일정한 지역을 조차해 주어 한국독립군을 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 등이었다.

17) 丁象謙, 「憶韓國臨時政府深得我孫大總統及國會非常會議同情之經過」, 『韓民』 第1期 第2號(重慶: 韓國國民黨宣傳部), 1940. 4. 25.

18)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6, 1989, 89쪽.

세웠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중국국민당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한독당이 좌익세력의 주도권 장악에 반발하여 결성되었고, 활동의 주무대가 중국 상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국민당과 연락·계휴를 도모”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지 않을 수 없다. 한독당 결성 직후인 1930년 2월 20일경 당 명의로 발표한 「告中國同胞書」는 이러한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¹⁹⁾ 이것은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한중 양국 민족이 함께 연합전선을 펼칠 것을 호소한 것이다.²⁰⁾

이에 대해서 중국국민당도 한국독립당에 대한 전폭적인 후원과 연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피력하였다. 한독당이 내세운 한중연대론에 찬동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1929년 11월 국내에서 발생한 광주학생운동을 언급하면서, 여기에서 보여준 한국인의 혁명의지는 중국인의 반제 투쟁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례라는 점을 일제히 공표하였다.

1930년 2월 초 중국국민당 절강성 집행위원회는 제80차 회의에서 한국독립운동 지사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뜻을 담은 전보를 발송하였다. 중국국민당 절강성 집행위원회가 상해 民國日報社를 통해 한독당 전체 지사 앞으로 보낸 전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 내에서 발생한 광주학생운동은 한국의 모든 노동자, 청년과 전체 국민이 한독당의 영도 아래 맨손으로 일본제국주의자와 격전을 벌인 것으로 민족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해치는 공공의 적과 생사를 건 투쟁을 전개한 것은, 실로 세계의 모든 피압박민족과 연합하여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는 국민당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중국국민당 절강성 집행위원회는 한독당과 한국의 전체 국민이 전개한 영광된 투쟁에 무한한 동정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한국독립운동에 힘을 실어줄 것을 약속한다.²¹⁾

중국국민당 상해특별시 제6구집행위원회도 『民國日報』에 「민중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하여 한국의 대일 항전이 孫文이 제창한 삼민주의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동양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국의 대일항전을 후원할 뜻을 표명하였다.

조선 민족의 분투는 민족자결주의의 진정한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 민족의 분투는 나라와 세상을 구하려는 삼민주의의 위대한 정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동아의 평화를 위해, 세계 대동의 실현을 위해, 불요불굴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적과 피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조선 혁명에 깊은 동정과 원조의 손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²²⁾

北平특별시 당무지도위원회, 六合현당부집행위원회 등에서도 한국독립당과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19) 『中央日報』 1930년 2월 22일자, 「韓國獨立黨發表告中國同胞書」; 추현수 편, 『자료 한국독립운동』 2, 연세대학교출판부, 1972, 132쪽.

20) 韓哲昊, 「1930년대 전반기 한중연대와 항일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2, 한국근현대사학회, 2002, 164쪽.

21) 『民國日報』, 1930년 2월 5일자, 「절강성 집행위원회, 한국독립운동을 성원하고 위로하는 전보 발송」.

22) 『民國日報』, 1930년 2월 13일자, 「중국국민당 상해시 제6구당부, 조선혁명을 성원하는 ‘민중에게 고하는 글’ 발표」.

전문을 상해 민국일보사에 전달하였다.

중국국민당이 추구하는 국민혁명의 궁극적 목적은 세계대동의 실현이다. 따라서 국민혁명을 진행하는 동시에 세계혁명의 추진이라는 또 다른 책임을 지고 있다. 더구나 중·한 두 나라는 유구한 역사적 관계를 맺어 왔으며, 공히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있는 마치 형제와도 같은 관계에 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중·한 두 나라는 반드시 연합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²³⁾

그밖에도 중국국민당 상해특별시 제4구집행위원회, 중국국민당 상해특별시 제4구제10분부, 중국국민당 상해특별시 제6구9분부 등에서도 신문에 한국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보내왔다.²⁴⁾ 중국국민당 山西省黨部에서도 중국민족에 대한 호소문에서 “조선의 復國 운동은 조선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선이 독립될 수 있으면 우리는 동북에 유력한 방벽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한국의 독립운동이 중국의 내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다.²⁵⁾

그리고 중국국민당 남경정부에서도 『中央日報』를 통해서 한국내 독립운동의 치열함을 찬양하고, 중국 민족이 제국주의 국가의 鐵蹄 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동병상련에서 한국을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원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제의 잔혹한 對韓政策을 폭로하고 한국인 지사의 자제를 중국에 수용하여 고등교육을 받게 하며, 중국에 한글학교를 설립하여 한민족의 후예들을 각성케 하고 부단히 혁명수양을 하게 하며, 한민족의 해방을 위해 최대한의 정신적·물질적 원조를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²⁶⁾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한독당은 1930년 10월 남경에서의 국민당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張學良의 참석을 계기로 한중연대를 본격적으로 모색하였다. 임정은 조소앙을, 한독당은 박찬익을 대표로 남경에 파견하여 재만 한인의 지위 개선을 청원하는 소책자 「東三省韓僑問題」를 전달하면서 교섭을 벌였다. 한편 1930년 11월 3일 한독당은 광주학생운동 1주년을 맞이하여 「光州慘案에 관해 중국동지에게 고하는 書」를 발표하였다. 한독당은 광주학생운동을 중국 濟南事件의 유혈참사와 동일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 한중 공동투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1931년 4월 남경에서 중국국민회의가 개최되자, 5월 12일 안창호는 「大韓民國臨時政府宣言」과 「동삼성한교문제」를 휴대하고 남경으로 가서 한독당과 국민당의 연대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1931년 7월 2일 일제의 한중 이간책으로 만보산사건이 발생하자 한중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²⁷⁾

이때 한중 간의 갈등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한독당에서 발행한 기관지가 바로 『韓報特刊』이다. 한독당은 그 「韓報特刊辭」에서 일본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중연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발행 부수를 늘려 중국 국민정부 산하 관공서·군정기관 및 일반 민중들에게 배포하였다. 때마침 1931년 9.18사변이 발생하자

23) 『民國日報』, 1930년 2월 15일자, 「北平에서 온 전문」.

24) 『民國日報』, 1930년 2월 20일자, 「4구집행위원회의 통전」, 「4구10분부의 통전」, 「6구9분부의 통전」.

25) 『中央日報』, 1930년 2월 10일자, 「朝鮮獨立運動之同情山西省黨部告同胞書」.

26) 『中央日報』, 1930년 2월 17일자, 「朝鮮民族獨立運動與吾人之所以爲助」.

27) 韓哲昊, 「1930년대 전반기 한중연대와 항일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2, 한국근현대사학회, 2002, 166~170쪽.

중국국민당은 陳果夫를 앞세워 한국독립당과 구체적인 합작을 시도하였다. 이때 중간 연결통로는 중국인들에게 淸精一로 잘 알려진 朴贊翊이었다. 한독당 당원이던 박찬익은 1.28 상해사변 당시 국민당 중앙조직부에 근무하였는데, 『震壇報』를 발행하여 중국 거주 한인들의 의식을 환기시킬 필요성을 제안하였다.²⁸⁾ 한편 1932년 김구가 이끈 한인애국단원 윤봉길이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으킨 의거가 성공하자 한중 양국 간의 갈 등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였다.

1933년 겨울 蔣介石이 남경으로 돌아온 뒤 陳果夫가 김구와 함께 蔣介石을 찾아감으로써 蔣介石과 김구와의 만남이 성사되었다.²⁹⁾ 이로써 중국국민당의 한국독립운동 후원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³⁰⁾

이후 한국독립운동에 필요한 경비는 김구를 단일 수령창구로 蕭鍾의 손을 거쳐 지원되었다. 김구는 처음에는 박찬익을, 나중에는 안공근을 대표로 파견하여 돈을 수령하였다.³¹⁾ 그런데 본래 국민당 정부는 한인 독립 운동가들이 김구를 중심으로 단합하기를 원하였지만, 김구와 김원봉은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당 정부는 부득이 한인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 계통을 이원화하였다.³²⁾ 따라서 김구에 대한 지원은 중국국민당 중앙당 조직부장 陳果夫를 중심으로 陳立夫·蕭鍾·貢沛誠 등이 담당하였고, 김원봉에 대한 지원은 군사위원회 삼민주의 역행사(藍衣社)의 滕傑·干國勳 등이 주관하였다.³³⁾

2. 한국독립당의 『震光』 발행

윤봉길 의거로 한독당이 중국국민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지만, 실제 활동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우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의 검거를 피해 상해를 떠나 뿔뿔이 흩어졌다. 임시정부를 지키던 김구도 1932년 5월 15·16 양일 간에 걸쳐 항주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국 조야로부터 임시정부에 보내진 경제적인 후원금의 행방과 관련된 금전적인 문제로 趙素昂·金澈 등과 크게 대립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임명된 軍務長職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석오 이동녕과 함께 가흥으로 떠났다.³⁴⁾

28) 蕭鍾, 「中國協助韓國光復之回憶」, 『傳記文學』 第44卷 第5期, 第45卷 第1·3·4·6期;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중국의 인식), 국사편찬위원회, 2008, 194쪽.

29) 蕭鍾, 「中國協助韓國光復之回憶」, 『傳記文學』 第44卷 第5期, 第45卷 第1·3·4·6期;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중국의 인식), 국사편찬위원회, 2008, 197쪽.

30) 蕭鍾, 「中國協助韓國光復之回憶」, 『傳記文學』 第44卷 第5期, 第45卷 第1·3·4·6期;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중국의 인식), 국사편찬위원회, 2008, 198쪽. 이 회담 이후 국민당은 다음과 같이 한국독립운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1) 매달 생활보조비 및 활동비 5천 원을 김구에게 전달한다. 필요한 모든 수속은 蕭鍾이 전담함. (2) 김구가 특별 용도의 사업비 집행계획을 올리면 蔣介石의 결재를 얻어 陳果夫가 경비를 마련함. (3) 김구의 안전문제 및 사무실 마련 등은 蕭鍾이 맡아 처리함. (4) 한독당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중국측 공작계획은 蕭鍾이 취합하여 陳果夫의 손을 거쳐 蔣介石에게 전달하고 최종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5) 한국사무 처리과정에 貢沛誠을 참여시킨다.

31) 蕭鍾, 「中國協助韓國光復之回憶」, 『傳記文學』 第44卷 第5期, 第45卷 第1·3·4·6期;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중국의 인식), 국사편찬위원회, 2008, 198쪽.

3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중국 인사 증언』, 「蕭鍾證言」, 147쪽; 한상도, 『韓國獨立運動과 中國軍官學校』, 문학과지성사, 1994, 307쪽.

33) 한상도, 『韓國獨立運動과 中國軍官學校』, 문학과지성사, 1994, 308쪽.

34) 趙凡來, 「韓國國民黨 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0, 373쪽.

상해 한국독립당은 1934년 1월 말까지 상해에 두고 있던 당 본부를 杭州의 學士路 思鑫坊 41호로 이전하고 새로운 진로와 활동방향을 모색하였다.³⁵⁾ 새로 이전한 항주에서 한독당의 주력사업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震光』의 발행이었다. 『震光』은 한독당이 항주로 이동하여 활동을 다시 재개하면서 발행한 한독당의 공식 기관지이다. 『震光』은 『韓報特刊』과 『韓聲』에서 강조된 한중연대론의 유지를 계승하였다. 한중 간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한중 우의와 연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한독당의 일관된 전략노선을 표명한 것이다. 특히 『震光』 발간 당시 한독당에서 김구가 이탈한 상황에서도 한중연대를 중시하는 『震光』이 발간되었다는 사실은 반제투쟁, 항일투쟁에 있어서 한중연대가 한독당의 일관되고도 중요한 정책노선이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한국독립당은 항주로 이전한 이후 기관지로 『震光』을 발간하는 한편, 1934년 6월까지 조직체제와 간부진에 대한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사장은 송병조로 변함이 없지만, 趙素昂·金澈·李相一 등이 상해 한국독립당의 기관지 『震光』의 발행을 주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요 세력으로 부상하였다.³⁶⁾

김구 등의 이탈로 변화가 불가피했던 임시정부는 1933년 말 鎮江에서 의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위원을 선정하였다. 1934년 1월 국무회의를 열어 鎮江에 판공처를 설치하였다. 상무위원 朴昌世가 주로 집무하고 국무위원 金澈·梁起鐸·宋秉祚 등도 누차 왕래하였다. 그러나 박창세가 특무대장으로 옮겨가면서 판공처를 杭州로 이전하고 김철·송병조 등이 주로 집무하였다. 김철·송병조·양기탁은 항주 長生路 湖邊村 32호를 거점으로 활동하였다.

한국독립당의 기록물은 원래 한독당 이사 김철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조카 金哲이 1933년 12월 22일 일본영사관에 검거되자 동 당원 李世昌으로 하여금 기록을 항주로 운반하여 龍興路 鳳凰街 大和里 8호에 은거하도록 하였다. 임시정부 재흥에 분주하였던 양기탁 등은 1934년 1월말 항주 學士路 思鑫坊 41호로 옮기고, 南京으로부터 李相一·朴敬淳, 上海로부터 李中煥·李世昌·金思濩 등을 불러 同所를 독립당 사무소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양기탁 등은 湖邊村 32호에 있던 임시정부 판공처에 은거하면서 기관지 『震光』 발간에 노력하였다.³⁷⁾

한독당 본부에서는 기관지 『震光』을 인쇄 배포하는 일을 중심으로 기타 시사에 필요한 선전인쇄물을 출간하였다. 그리고 매월 당비 20전과 수입 연금 백분의 일을 각출하는 등 상해에 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당을 운영하였다. 항주 이주 후에도 한독당 본부는 廣東區(金朋濬·楊明鎭·具益均), 南京區(金料奉·崔錫淳·李光濟·李雲煥), 鎮江(姜昌濟) 등에 있는 지부들과 긴밀히 연락하였다. 상해에서 이주해온 임시정부는 처음에 항주시 湖邊村에 판공처를 두었으나 일본 관헌에게 탐지되었기 때문에 한독당 본부 이전 조금 후인 1934년 11월 초순에 항주시 西大街 濤桓里 12호로 이전하였다. 임시정부 측은 김구와 문제와 기타 사정 등으로 인원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와 한독당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한독당에서 의정원 공보를 발행하였다.³⁸⁾

35) 조범래, 『韓國獨立黨研究』, 선인, 2011, 103쪽.

36) 조범래, 『韓國獨立黨研究』, 선인, 2011, 104쪽.

37) 국회도서관,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1976, 819쪽.

한독당은 항주로 이전한 후 공식 기관지로 『震光』을 발행하였다. 한인애국단 및 군사행동에 주력하기 위해서 김구씨가 이탈한 이후 피난살이 신세가 된 한독당으로서는 『震光』 발행과 같은 선전활동이 당시로서는 가장 주된 업무에 해당하였다.

『震光』은 국한문판·중문판 두 종류로 발행되었다. 중문판은 중국국민당을 시작으로 그 정부, 학교, 도서관, 신문사 등에 선전용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제작하였고, 매호 약 천 부씩 인쇄하였다. 원고 기안과 수집, 교정 등은 주로 趙素昂이 담당하였다.³⁹⁾ 『震光』의 국한문판은 震光社 명의로, 중문판은 韓國獨立宣傳部 명의로 발행하였지만, 震光社라는 특별한 인쇄소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국한문판 원고는 李相一, 중문판 원고는 趙素昂이 주로 기초하였다.⁴⁰⁾ 국한문판은 한독당원은 물론 재중국 한국인을 시작으로 한국의 주된 신문사 등에도 배포하여 서울의 동아일보사나 조선일보사쪽에도 배포되었다. 그 발행 부수는 매호 5백 부 정도였다.⁴¹⁾

『震光』을 발행할 때 인쇄소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한독당은 杭州市 青年路에 있는 東南日報社⁴²⁾에 의뢰하여 『震光』을 인쇄하였다. 동남일보사는 국민당 절강성당부의 기관지 일간 신문이었기 때문에 조소앙이 省黨部의 양해를 얻어 그곳에서 인쇄하였다. 그러나 『東南日報』는 중문판 신문으로서 한글 활자가 없었다. 한글 활자는 원래 중국에는 없기 때문에 국한문판 인쇄에 지장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국독립당에서는 金料奉에게 한글 활자를 제작하게 한 바 있었기 때문에 그 활자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震光』 국한문판을 식자할 때는 이 활자를 사용하였다. 한독당에서는 본부에 있는 한글 활자를 식자하고 교정까지 하여 동남일보사에서 인쇄한 것을 수령하였다. 이 업무는 주로 朴敬淳이 담당하였다. 식자 조립에는 박경순 외에도 한독당 본부에 있는 당원 김사집과 이중환이 참여하였다.⁴³⁾ 1934년 3월 25일자 『震光』 제2·3호 합간(중문판) 발행 때에는 趙素昂·金思濶·李相一 등이 원고를 집필하였고, 박경순은 영문 번역을 담당하였다.⁴⁴⁾ 김사집도 영문 번역을 담당하였다.

한독당이 항주에서 『震光』을 발행하는 데에는 역시 중국국민당의 원조가 있었다. 중국국민당은 『震光』의 발행을 위해서 동남일보사 인쇄소를 사용하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발행 비용을 지원하였다. 浙江省 黨部에서 잡지 발행 원조금으로 매월 40원씩 지원하였다. 『震光』의 국한문판 약 5백 부, 중문판 약 1천부를 인쇄하기 위해서는 총비용 약 70원이 소요되었는데, 나머지 부족분은 廣東支部에서 지속적인 송금이 이루어졌다.⁴⁵⁾

38)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6, 2001, 39쪽.

39)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6, 2001, 40쪽.

40) 국회도서관,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1976, 819쪽.

41)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6, 2001, 40쪽. 『震光』은 1934년 1월 25일자로 창간 제1호(국한문판·중문판)가 출간되었다. 그 후로 3월 25일자로 제2·3호 합간호가 발행되었다. 동년 5월 25일자로 제4호, 동년 6월 25일자로 제5호(失傳), 동년 9월 25일자로 제6호가 속간되었다. 『震光』의 발행 수량은 국한문판은 약 5백 부였다. 이것을 배부처 명부에 따라 상해, 남경, 廣東, 기타 각지의 한국인 앞으로 우송 배포하였다. 『震光』 중문판은 약 1천 부 인쇄하여 이것 역시 배부처 명부에 따라 중국 요인, 항일분자 및 각처의 학교, 도서관 등에 우송 배포하였다.

42) 1927년 3월 중국국민당 浙江省黨部 기관지로 창간된 杭州 『民國日報』는 1934년 6월 16일 『東南日報』로 개명하고 東南日報股份有限公司를 설립하였다. 陳果夫가 董事長, 胡健中이 社長, 劉湘女가 總編輯을 맡았다.

43)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6, 2001, 40쪽.

44)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6, 2001, 40쪽.

일제의 정보문서에 의하면, 1934년 11월 현재 한독당은 江蘇省政府 주석인 陳果夫의 후원과 항주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 李錚의 직접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浙江省黨部 위원 羅霞天으로부터는 월액 2백~3백 불 가량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 외에도 한독당은 항주 절강성 黨部和 公安局 측의 비호하에 항주 學士路 思鑫坊 41호에 본부를 설치하고 이사장 송병조, 재무장 김철, 내무 조소앙, 선전부 이상일 등 21명이 출입하며 활동하였다.⁴⁶⁾ 중국국민당이 『震光』 발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 공동 연대가 항일 투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震光』은 民族革命黨 결성 문제로 한독당이 일시 해체되면서 발행이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한독당이 다시 '재건'되면서 속간되었다. 1935년 11월호로 『震光』 제4·5호 합권(중문판)이 한독당 재건파의 기관지로 발행된 것이다.⁴⁷⁾ 이러한 사실은 임시정부 여당으로서 한국독립당의 내용적 계승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국국민당이 중요하지만, 당의 명칭과 기관지(『震光』)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재건 한국독립당이 한국독립당의 名義와 기관지를 계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⁸⁾

한국독립당 재건파는 1935년 7월 민족혁명당 결성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도세력인 金元鳳 일파의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싫증을 느끼고 신당을 탈당한 朴昌世·趙素昂·文逸民 등 구 한국독립당에 속하던 일파였다. 이들은 민족주의계로서 한국독립당 재건파 결성 직후 중국 쪽에 대하여 선전하고 이들의 신용을 얻을 필요를 통감했다. 그리하여 한동안 휴간 중이던 구 한국독립당 기관지 『震光』을 다시 발행하기로 하고 1935년 11월호로 『震光』 제4·5호 합권(중문판)을 발행하여 각 방면에 우송 배부하였다.⁴⁹⁾

상해 한국독립당의 기관지였던 『震光』을 재건 한국독립당에서 다시 발행하게 된 것은 『震光』 발행에 관여했던 주요 인물들이 다시 재건 한독당의 결성에 참여하여 그 당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재건 한국독립당이 상해 한국독립당의 후신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⁵⁰⁾ 그만큼 『震光』은 한국독립당의 정통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지였다. 그러나 이후 『震光』은 더 이상 발행된 것 같지 않다. 민족혁명당 가입과 탈퇴로 인한 여파로 재건 한독당이 겪고 있던 극심한 재정난과 인력난 때문이었다.

한독당 재건파 朴昌世·趙素昂·文逸民·洪震은 김구 일파와 감정적으로 양립하지 못하였고 민족혁명당과도 서로 대립하였다. 그래서 자금난에 빠진 결과 廣東 방면으로 모금을 나갔지만 실패로 끝났다. 겨우 江蘇省 黨部로부터 매월 150元 내지 200원의 원조금을 받으면서 가까스로 자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략하였다.⁵¹⁾

재정적인 어려움과 함께 민족운동 진영 내부의 분열도 재건 한독당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김구의 이탈 이후 한독당의 양대 세력으로 부각된 송병조와 조소앙의 갈등이 노골화된 것이다. 임시정부의 부흥

45) 국회사서관,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1976, 820쪽.

46) 국회사서관,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1976, 852쪽.

47) 社會問題資料研究所, 『思想情勢視察報告書』 3, 東洋文化社, 1976, 17쪽.

48) 정병준, 「해제」,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3(한국독립당 I), 2009.

49) 社會問題資料研究所, 『思想情勢視察報告書』 3, 東洋文化社, 1976, 276쪽.

50) 조범래, 『韓國獨立黨研究 1930~1945』, 선인, 2011, 312쪽.

51) 社會問題資料研究所, 『思想情勢視察報告書』 3, 東洋文化社, 1976, 255쪽.

을 위해서는 김구의 재정적 원조와 한민애국단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송병조는 김구의 복귀를 반대하는 조소앙 등이 민족혁명당의 밀명을 받고 임시정부를 와해시키려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결국 조소앙·박창세 등 재건 한국독립당 계열을 배제한 채 1935년 11월 제28회 임시의정원 의회에서 국무위원 보선을 실시하여 조소앙 계열의 임시정부 참여를 좌절시켰다. 그 결과 재건 한독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져 재건 한독당 당원의 숫자는 가장 많은 경우에도 20여 명을 넘지 못할 정도였다.⁵²⁾

재정적인 곤란, 조직 기반의 위약성 등으로 한독당은 1936년에는 한국국민당과의 합당까지 고려할 정도로 곤경에 처해졌다. 따라서 1935년 11월호로 발행된 『震光』 제4·5호 합권(중문판)은 한독당원들의 의지가 무색하게 마지막 기관지가 되고 말았다. 재건 한국독립당은 한국국민당에 재정적인 문제 등을 의존하게 되었고, 3.1절이나 8.29국치일 등을 맞이하여 간헐적으로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의 선전 활동 이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⁵³⁾

한국독립당의 공식 기관지로서 한중연대론을 선전했던 『震光』은 정치 지형의 변동으로 재건 한독당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서 그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그렇지만 『震光』을 통해서 표방된 한중연대론은 한독당은 물론 중국국민당 인사들의 공통된 항일투쟁 방안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욱이 비슷한 시기 좌익진영인 朝鮮民族戰線聯盟에서 간행한 『朝鮮民族戰線』⁵⁴⁾에서도 한중 공동의 항일투쟁이 강조되었던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Ⅲ. 『震光』 수록 한중연대론의 연원과 내용

『震光』에서 표명된 한중연대론의 시원을 찾는다면 『韓報特刊』을 꼽을 수 있다. 『韓報特刊』은 한독당에서 발행한 최초의 기관지였던 『韓報』의 자매지였다. 국한문판으로 적어도 18호까지 발간된 것으로 보이는 『韓報』가 주로 한인들의 독립사상·민족의식을 주입하기 위해서 발행되었다면, 『韓報特刊』은 ‘중국과의 제휴 및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다 특별한 목적에서 발행되었다. 만보산사건(1931.7.2)으로 인해서 악화된 중국인의 감정을 해소할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 『韓報特刊』이었기 때문이다. 『韓報特刊』은 이 목적을 위해서 발행부수 및 지면을 크게 확장하고, 중문으로 간행하여 이를 중국 국민정부의 세력범위 내에 있는 모든 관공서·관리·軍政 기관을 비롯 일반 민중들에게까지 배포하였다. 그러나 실물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⁵⁵⁾

한편 한중연대론과 관련하여 『震光』의 논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한국독립당 廣東支部에서 발행한 기관

5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 6, 2004, 169쪽.

53) 조범래, 『韓國獨立黨研究 1930~1945』, 2011, 150~151쪽.

54) 『朝鮮民族戰線』은 1938년 4월 10일 中國 漢口에서 창간된 후 반월간으로 발간되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1988년에 창간호부터 제5·6기 합간본까지 총 다섯 책을 영인하여 韓國獨立運動史資料叢書 第2輯으로 간행하였다.

55) 趙素昂, 『素昂集』(中篇), 21~22쪽; 韓詩俊, 「上海 韓國獨立黨研究」, 『龍巖車文燮教授華甲紀念 史學論叢』, 新書苑, 1989, 622~623쪽.

지 『韓聲』(The Voice of Korea)이었다. 『韓聲』은 특히 중국 국민당 인사들의 논설이 다수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한중연대에 관한 중국측의 입장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한국독립당 광동지부가 설치된 것은 1930년이다. 한국독립당 결성 직후인 1930년 봄 김구는 王億·李石을 파견해 광동에서 在廣東韓國國民革命黨前衛總部를 조직하였다. 이를 1932년 11월 한국독립당 광동지부로 개조한 것이다. 『韓聲』은 1932년 11월부터 제1호가 발행된 것으로 보이며, 제3호(1933.1.20)까지 발행되었다. 중국국민당 광주특별당부, 광주시 參議會, 국민당 간부 胡文燦의 題字가 실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측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중문판으로 발간되었다. 주된 내용은 한중협력, 한국혁명 방략, 일제하 한국의 현상 등이다. 매호 36쪽 분량 내외로 발행된 것으로 보이며 李斗山이 이를 주관하였다.⁵⁶⁾

비록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3호뿐이지만, 창간호와 제2호의 목록이 제3호의 말미에 기록되어 있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창간호에는 맨앞에 광동성당부 위원 陸匡文, 화교의용군 총사령 黃明堂, 그리고 한국독립당 총무 李春山の 題字가 실려있고, 한중연대와 관련해서는 石栗의 「투쟁은 피압박민족의 유일한 탈출구」, 李斗山の 「금후 중한의 실질 문제」, 祺의 「중한민군 연합의 의의」, 그리고 무명씨의 「한국독립당○○지부가 중국인사에게 고하는 글」 등이 실려 있다. 제2호에도 雷通群의 「항일을 위한 중한의 연결」, 石栗의 「동북사변과 중한혁명의 진도 및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책략」 등 한중연대론과 관련된 글들이 실려 있다.

현전하는 『韓聲』 제3호를 통해서 한중연대론의 진면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맨 앞에 중국국민당 광주특별시 黨部에서 보내준 ‘同心同德 抵抗暴日’이라는 題字와 광주시 參議會에서 보내준 ‘努力奮闘’, 국민당 간부 胡文燦의 題字가 실려있다. 그 다음에 송구영신(李斗山)/1932년을 보내며(斗山)/중한협력과 항일상의 긴급문제(雷通群)/한국혁명방략에 대한 소견(李斗山)/목하 중한동포에게 거는 기대(浩劫餘生)/일본제국주의 하 한국의 현상(李石川)/우리의 적 - 일본제국주의(文田)/중한연합(石栗)/중한대일연합전선(蕾丁)/금후 중한 두 민족이 마땅히 기울여야 할 노력(依光)/중소 국교회복과 한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인식(淪落)/Hope Springs For The Better In Our Struggle(Lee Doo San)/중요소식/감사의 말/사고/편집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雷通群이 쓴 「중한협력과 항일의 긴급문제」에서는 가장 긴급한 문제 4가지를 요약하고 있다. 첫째 중한 쌍방이 암살단을 조직하여 일본군벌의 수뇌에 대한 암살을 적극 진행하는 것, 둘째 한국 내지 각처에서 기의를 일으켜 일본군벌이 앞뒤에서 적을 맞아 싸워야 하는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것, 셋째 위만주국 괴뢰정권의 앞잡이와 중국군관 가운데 적과의 싸움에 힘을 다하지 않는 자들을 색출하여 징벌하는 것, 넷째 결사대를 파견하여 적군이 집결한 군영의 몇 곳을 파괴하는 것이다.⁵⁷⁾

한독당의 한중연대에 대한 기대는 浩劫餘生이라는 필명으로 씌어진 「목하 중한 동포에게 거는 기대」라는 글에 잘 나타난다.

중국의 적은 일본제국주의이다. 한국민족독립운동의 적 역시 만악의 근원인 일본제국주의이다. 공

56) 최기영, 「李斗山の 在中獨立運動」, 『한국근현대사연구』 42,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57) 雷通群, 「중한협력과 항일의 긴급문제」, 『韓聲』 3, 1933.

동의 적인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중한 두 민족의 연합이 가장 중요하다. ……중한의 합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한 적의 이간질을 경계해야 하며, 적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중한의 혁명민중이여 연합하라! 우리의 공동의 적인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⁵⁸⁾

石栗이 쓴 「중한연합」이라는 글도 역시 한중연합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지금 많은 동포들이 항일을 위해 미국이나 소련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의론이 분분하지만, 미국 혹은 소련과 연합을 꾀하는 것은 이리를 쫓으려다 호랑이를 끌어들이는 것과 같이 화를 자초할 뿐이라는 점, 미국과 소련이 일본에 적대적인 이유는 중국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이 일본의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피차간에 이해가 동일하고 입장이 같아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의 독립운동은 일본제국주의의 압박과 착취에 신음하는 민족의 해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약소민족과의 연합은 한국 민족과의 연합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나서 ‘중한연합’의 중요한 의의를 두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는 ‘중한연합이 세계 약소민족 연합의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둘째로 ‘중한연합은 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약소민족 투쟁의 첫 번째 순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⁵⁹⁾

雷丁이 쓴 「중한대일연합전선」이란 글에도 한중합작의 필연성이 서술되어 있다. 한국은 일본제국주의의 발굽에 밟혀 존재와 자유를 모두 잃었고 중국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당하여 죽음의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는 형편이라는 점, 한중 두 민족은 모두 일본제국주의의 포로와 같은 신세로서, 적들은 조만간 중한 두 민족을 말살시키려 들 것이라는 점,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목전의 이해관계만 보더라도 두 민족이 긴밀하게 결합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진단하였다. 한중 두 나라가 유구한 역사관계를 가진 우방, 또는 국경을 맞댄 지리적으로도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차치하더라도 공동의 적인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중연합전선의 결성은 시대의 요구라고 평가하였다.⁶⁰⁾

依光의 「금후 중한 두 민족이 마땅히 기울여야 할 노력」이라는 글은 좀더 격렬하다. 이 글은 세계를 제국과 반제국으로 나누고, 한중연대가 반제투쟁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한연합군은 이미 동북의 여러 곳(지명 생략-필자)에서 십여만의 중한민중과 연합하여 일본제국주의 강도 집단과 ‘죽기 아니면 살기’의 피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국주의의 목줄을 끊어놓을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것이다. 식민지와 반식민지는 제국주의 생존의 생명줄이다. 가만히 앉아서 세계혁명이 성공하고 제국주의의 수명이 다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이제 행동에 나설 때가 왔다. 먼저 모든 피압박, 피착취민중이 굳게 뭉쳐 중한연군과 함께 반제국주의의 선봉에 서야 한다. 제국주의의 강도행위를 제지하고 일본제국주의를 박멸하여 우리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 금후 중한 두 민족이 마땅히 노력해야 할 것은 긴밀히 연합하여 단결하고 분투하는 것이다!

58) 浩劫餘生, 「목하 중한 동포에게 거는 기대」, 『韓聲』 3, 1933.

59) 石栗, 「중한연합」, 『韓聲』 3, 1933.

60) 雷丁, 「중한대일연합전선」, 『韓聲』 3, 1933.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다한다면 최후의 승리는 당연히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⁶¹⁾

이와 같은 『韓聲』의 내용은 『震光』에 담긴 한중연대론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한독당은 항주 이전 후에도 광주지부의 인사들 특히 『韓聲』 발간을 책임지고 있던 金朋瀾 등과 긴밀한 연락 관계를 취하면서 한중연대론의 취지를 그대로 계승, 발전시켰다.⁶²⁾ 『韓聲』에 수록된 중국 국민당 인사들의 한중연대에 대한 견해는 한국독립당 인사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의 적은 일본제국주의라는 인식과 함께 일제에 대한 한중의 항전은 반제국주의 투쟁의 선봉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IV. 『震光』의 한중연대론

한국독립당의 공식 기관지 『震光』은 1934년 1월부터 당본부 기관지로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국한문판과 중문판의 2종류가 발행되었다. 총 6호가 현존하고 있는데, 1호(1934. 1)는 국한문판·중문판 2종이 간행되었으며, 제2·3호(1934. 3), 제4호(1934. 5), 제6호(1934. 9)는 국한문판이, 제4·5호 합권(1935. 11)은 중문판으로 간행되었다. 제5호는 미발견 상태이다.⁶³⁾

『震光』 제1호 중문판 「震光創刊所感」에 따르면 『震光』의 직능과 임무는 모두 8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1) 한국독립운동의 真相을 선전함으로써 우방과의 연락을 촉진하며 나아가 협력을 도모하여 함께 仇敵을 剷除함을 본래의 임무로 한다. (2) 列國의 혁명과정에 관한 일체를 수집하여 그 진수가 한국의 민족운동에 도움이 되게 한다. (3) 仇敵의 對韓虐政 및 대중국 영토침략·기만정찰·이간·분화 등 실재와 내막을 폭로하여 피침략민족의 반성을 촉구하고 奸策에 빠지지 않게 한다. (4) 자체의 과거와 오류를 청산하여 민족적 혁명공작의 진로를 제시한다. (5)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黨人和 민중을 훈련시켜 건전한 활동분자로 만든다. (6) 黨人을 조직, 무장시켜 독립군을 편성하여 모종의 시기에 이들로 하여금 적진에 뛰어들 핵심이 되게 한다. (7) 大公無私의 革命立場으로 사람들을 이론의 범주에 끌어들여 대중적 집단을 창조한다. (8) 한국사상의 土族專制와 토지점령의 제도를 부인하고 全民的 정치·경제·교육의 민주균등제도를 제창하며 천하를 化成케 하는 것이 『震光』의 究竟이다.⁶⁴⁾

이와 같이 『震光』의 간행 목적은 한민족을 독립운동의 장으로 응집시킬 수 있는 이념적 토대를 제공하며, 한중연대의 당위성을 제시하여 항일투쟁에 공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중에서 한중연대를 강조한 내용으로는 (1)번과 (3)번이 대표적이다.

한독당에서 주장하는 한중연대론은 중국인을 상대로 한 『震光』 중문판에 주로 수록되었다. 특히 중국인을

61) 依光, 「금후 중한 두 민족이 마땅히 기울여야 할 노력」, 『韓聲』 3, 1933.

62)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6, 2001, 39쪽.

63) 조범래, 『韓國獨立黨研究(1930~1945)』,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249쪽.

64) 『震光·朝鮮民族戰線·朝鮮義勇隊(通訊)』 제1호(중문판), 「震光創刊所感」,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23~24쪽.

상대로 한 『震光』 중문판 제1호에서는 한독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중연대론의 논리가 가장 풍부하고도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우선 「震光創刊所感」에 이은 「韓華民族革命之聯鎖關係」는 한중 연대가 왜 필연적인가를 동양철학적 측면에서 설파하였다.

동양의 우주자연관에서 이른바 ‘聯帶의相應力’ 혹은 ‘聯帶之相應力’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한국민족과 중국민족이 각자 이것에 힘써야만 하는 당위성을 천명하였다.

크도다 ‘聯帶의相應力’, 지극하도다 ‘聯帶之相應力’이어. 한 번 움직이면 가히 천지를 자리잡게 하고, 두 번 돌면 가히 만물을 세우고, 세 번 돌면 가히 망한 것을 흥하게 하고 끊어진 것을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인가? 본디 천지 필연의 형세로서 사람의 按配, 佈置, 計較, 思量이 미칠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불가항력의 형세라고 하는 것이니, 聯帶의相應力보다 큰 것이 없다. 철인이 그것으로써 그 신묘함을 확립하여 만세를 가르침에 다함이 없고, 뛰어난 준걸이 그것으로써 그 형세를 빌려 위험한 데 처하더라도 패하지 않고, 과학자가 그것으로써 연역과 귀납을 제어하여 혁명 전선에 응용하고, 만방을 이끄는 빠트림이 없는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이것은 일부 인류가 차용하는 모습일 뿐이다. 어찌 그 본체를 이름이겠는가? 만약 그 본체를 말하자면 담담하고 玄沖하여 沖漠 無相하다. 은미하고 지극하여 천지로 하여금 그 궤도에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며 萬相이 그 자취를 따르도록 하여 능히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하물며 일개 세포 중 가장 밀접하고 가까운 韓華革命임에랴! 만약 한국이나 중국에서 이것을 버리고 민족혁명을 도모하는 자가 있다면 원기를 배격하고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 이로써 우리 우방에 힘쓰고 아울러 同人을 권면하라.⁶⁵⁾

요컨대 우주자연의 이치에 빗대어 보아도 한중연대는 ‘天地必然之勢’이며, 인간의 인위적인 안배와 계획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의 3.1운동의 정신과 중국의 신해혁명의 정신이 같은 것임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신해혁명에서 밝힌 바 인권·평등·자유는 한국의 3.1운동에서 천명한 독립과 자주성의 정신과 함께 하늘의 明命이고 시대의 대세라는 것이다.⁶⁶⁾

한편 「民族問題研究」에서는 계급문제보다 민족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계급운동은 항상 민족 범위 내에 국한되는 것이 많은 까닭이다. 민족은 압박민족과 피압박민족으로 구분된다. 압박민족은 인류세계사 진전의 반동적 존재이고, 피압박민족은 그것에 반한 혁명적 존재이다. 따라서 한중 연대는 피압박민족의 연대를 뜻하며 이것은 압박민족에 대한 혁명적 존재가 된다.⁶⁷⁾ 그래서 「韓華民族革命之聯鎖關係」

65) 『震光』 제1호(중문판), 「韓華民族革命之聯鎖關係」, 1934, 3쪽, “大哉 ‘聯帶의相應力’ 至哉 ‘聯帶之相應力’ 一動可以爲天地再轉可以立萬物 三轉可以興亡繼絕 是孰使之然歟 固天地必然之勢 而非人之按配佈置 計較思量所可致也 故曰 不可抗之勢 莫大於聯帶의相應力 哲人以之立其妙 詔萬世而不窮 豪俊以之借其勢 處艱險而不敗 科學者以之演繹歸納而制之 應用於革命之線 驅萬邦而不遺 雖然 是一部人類借用之相耳 豈其本體之謂耶 若其本體乎 則湛爾玄沖 沖漠無相 電馳而不見 其貌電擊而莫測 其跡惶兮惚兮 微而至而 使天地莫逃於其軌 萬相輻其跡而莫能脫 而況一個細胞中 最接密邇之韓華革命乎 有欲捨此而誤民族革命於韓華者乎 則無異乎排擊元氣 掩鼻口而拒呼吸 吾以此勉我友邦 并以勉同人焉.”

66) 『震光』 제1호(중문판), 「韓華民族革命之聯鎖關係」, 1934, 3쪽, “中國革命黨檄文之一節(辛亥年東京萬朝報載) 大道之行 天下爲公 國有至尊 是曰 人權平等自由 樂天歸命 以生爲體 以法爲界 以和爲德 以衆爲量 一人橫行 諡曰獨天 韓國獨立宣言之一節(己未年三月一日) 吾等茲宣布 我韓國之爲獨立國 韓人之爲自主民 是天之明命 時代之大勢 天下何物 莫能沮止.”

67) 『震光』 제1호(국한문판), 「民族問題研究」, 1934, 7쪽.

係」에서 한중연대를 ‘韓華革命’이라고 칭하였다.

그 다음 글은 「李舜臣龜船之研究」이다. 이 글을 실은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 우선 임진왜란은 조명 연합군이 왜구에 맞서 싸운 ‘한중 양국의 대일 戰史上 최대 사건’이다. (2) 거북선은 영국 해군사에서 철갑함의 비조로 일컬어지는 것이고, 일본 해군 참모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는 것으로 당시 승리를 이끈 것이 거북선의 영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갓 자취만 있을 뿐 왜적의 형세가 날로 창궐하고 무기와 군계가 수백 수천배에 달해 모르는 사이에 망연자실할 뿐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역사서와 이충무공전집과 각종 문자에 근거하여 거북선이 어떤 물건인지 소개하고자 한다.⁶⁸⁾ 즉 항일 한중연대 투쟁의 역사적 경험을 임진왜란에까지 소급시키고, 세계 전사에 이름을 크게 떨친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의 위용을 중국인들에게 자랑함으로써 한국인의 저력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그 다음 글은 「女俠南慈賢先生傳」이다. 한국에도 남자못지 않은 여협이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자현의 전기를 실었다고 한다.⁶⁹⁾ 여자도 혁명전선에 참여하여 큰 활약을 전개했음을 보여줌으로써 남녀를 불문한 한국인의 투쟁능력을 역사적 사례로서 제시하였다.

그 다음 글은 「杭州雜錄(一)」이다. 이 글은 『震光』의 발행지였던 항주에 있는 高麗寺라는 절의 변천사를 살펴본 것이다. 한독당 본부가 이주해 있는 항주에, 지금으로부터 오래 전인 고려시대부터 한중간 인물 교류 및 문화 교류와 친선의 역사가 있었음을 고찰하였다.⁷⁰⁾

그 다음 「韓國臨時政府之近狀」에서는 최근 선임된 국무위원을 소개하고 있다.⁷¹⁾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체계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선전한다. 「浙江圖書館文化展覽會中本國古書珍本」에서는 1934년도 1월 1일부터 개최된 절강성립 도서관 문화전람회에 전시된 한국 전통 고서 목록을 소개하고 있다.⁷²⁾ 한국이 중국에 필적할 만큼 문화적으로 유서깊은 전통문화 국가라는 점을 과시하면서 공통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중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美日開戰後勝敗之結果如何」에서는 당시에 일본 주전파에 의해서 팽배하게 나돌던 1936년 이전 태평양전쟁설을 토대로 미래를 전망하면서, 일본이 필시 몰락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논설하였다.⁷³⁾

『震光』은 1935년 11월호로 제4·5호 합권이 중문판으로 재발행되었다. 상해 한국독립당의 기관지이었던 『震光』을 재건 한국독립당에서 재발행한 것이다. 이 제4·5호 합권에서는 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중 문화교류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한중연대의 유구한 역사성과 필연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다음 문장에서 한중연대를 지향하는 한독당의 기대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중한 두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심하여 적들과 생사를 건 혈투를 전개할 절호의

68) 『震光』 제1호(중문판), 「李舜臣龜船之研究」, 1934, 4쪽.

69) 『震光』 제1호(중문판), 「女俠南慈賢先生傳」, 1934, 12쪽.

70) 『震光』 제1호(중문판), 「杭州雜錄(一)」, 1934, 12~18쪽.

71) 『震光』 제1호(중문판), 「韓國臨時政府之近狀」, 1934, 18쪽.

72) 『震光』 제1호(중문판), 「浙江圖書館文化展覽會中本國古書珍本」, 1934, 19~20쪽.

73) 『震光』 제1호(중문판), 「美日開戰後勝敗之結果如何」, 1934, 21쪽.

기회이다. 오직 이것만이 중한 두 민족의 전도를 밝게 할 방도이다. ……이제 중한 두 나라 장사들이 岳飛와 李舜臣을 본받아 들고 일어설 때가 되었다.⁷⁴⁾

『震光』 제4·5호 합권(중문판)에는 삼국시대에 중국에 파견된 사신들을 비롯하여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중 간에 교류된 서책의 書目이 연도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⁷⁵⁾ 한중 양국의 유사깊은 전통적 교류관계를 밝힘으로써 한중 공동 항일투쟁의 역사적 당위성을 제시한 것이다.

V. 맺음말

『震光』은 1934년 1월부터 한국독립당이 발간한 공식 기관지이다. 『震光』은 1932년 尹奉吉 의거로 상해를 떠나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한국독립당 인사들이 杭州에 집결하여 활동을 재개하면서 발행한 기관지이다. 『震光』은 그 「緒言」과 「震光創刊所感」에서 그 직능과 임무를 “한국독립운동의 진상을 선전하고, 아울러 우방과의 연락을 촉진하며 나아가 협력을 도모하여 공동으로 仇敵을 없앴을 본래의 기능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본고에서는 『震光』의 두 가지 큰 내용 중에서도 한중연대론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였다. 첫째 『震光』 발간을 후원한 중국 국민당과 한독당과의 관계, 둘째 한중연대론에 대한 중국국민당 인사들의 입장, 셋째 『震光』에서 한독당이 내세운 한중연대론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震光』을 매개로 추진되었던 한중 연대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震光』의 발행은 중국국민당이 후원하였다. 중국국민당은 『震光』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당 기관지를 발행하던 東南日報社 인쇄소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국민당이 『震光』 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은 한중 공동 연대가 항일 투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震光』은 1934년 1월 25일자로 창간 제1호(국한문판·중문판)가 출간되었다. 그 후로 3월 25일자로 제2·3호 합간호가 발행되었다. 동년 5월 25일자로 제4호, 동년 6월 25일자로 제5호(失傳), 동년 9월 25일자로 제6호가 속간되었다. 『震光』의 발행 수량은 국한문판은 약 5백 부였다. 이것을 배부처 명부에 따라 상해, 남경, 광둥, 기타 각지의 한국인 앞으로 우송 배포하였다. 『震光』 중문판은 약 1천 부 인쇄하여 이것 역시 배부처 명부에 따라 중국 요인, 항일분자 및 각처의 학교, 도서관 등에 우송 배포하였다.

『震光』에 수록된 한중연대론의 시원은 만보산사건(1931.7.2)으로 인해서 악화된 중국인의 감정을 해소할 목적으로 한독당에서 발행한 『韓報特刊』이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震光』의 논조에 큰 영향을 준 것은 한

74) 『震光』 제4·5호 합권(중문판), 「先民의 遺蹟과 민족의 전도」, 1935.

75) 『震光』 제4·5호 합권(중문판)은 다음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다. 국가보훈처,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Ⅶ): 중국편(3), 1933, 149~189쪽.

국독립당 廣東支部에서 발행한 기관지 『韓聲』(The Voice of Korea)이었다. 『韓聲』은 특히 한중연대론과 관련된 중국국민당 인사들의 입장이 많이 담겨있다. 여기에서 중국국민당 인사들은 한중 두 나라가 유구한 역사관계를 가진 우방이라는 점을 차지하더라도 공동의 적인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중한연합전선의 결성은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하였다. 『韓聲』에서 제시된 한중연대론의 취지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 『震光』이다.

『震光』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 국한문판과 중국인을 상대로 한 중문판 두 종류로 발행되었다. 그중에서 한중연대론은 중문판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震光』 중문판 제1호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독당에서 한중연대론의 논리를 역사적 필연성에뿐만 아니라 동양철학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점이다. 『韓華民族革命之連鎖關係』를 보면, 우주자연의 이치에 빚대어 보아도 한중연대는 ‘天地必然之勢’이며, 인간의 인위적인 안배와 계획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震光』을 통해 한중연대론의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震光』은 民族革命黨 결성 문제로 한독당이 일시 해체되면서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한독당이 다시 ‘재건’되면서 속간되었다. 1935년 11월호로 『震光』 제4·5호 합권(중문판)이 한독당 재건과의 기관지로 발행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임시정부 여당으로서 한국독립당의 내용적 계승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국국민당이 중요하지만, 당의 명칭과 기관지(『震光』)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재건 한국독립당이 한국독립당의 名義와 기관지를 계승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만큼 『震光』은 한국독립당의 정통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지였다. 재건 한독당이 재발행한 『震光』 제4·5호 합권(중문판)에서는 역시 한중연대의 유구한 역사성과 필연성이 다시금 강조되었다. 『震光』을 통해서 일관되게 표방된 한중연대론은 한독당과 중국국민당 인사들의 공통된 항일투쟁 방안이었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중국의 인식), 200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3(임정편 Ⅲ), 탐구당, 1973.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6, 2001.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6, 1989.
 국회도서관,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1976.
 김정주 편, 『조선통치사료』 제10권, 동경: 한국사료연구소, 197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震光·朝鮮民族戰線·朝鮮義勇隊(通訊)』, 198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사전』 6, 2004.
 社會問題資料研究所, 『思想情勢視察報告書』 3, 東洋文化社, 1976.
 蕭鐸, 「中國協助韓國光復之回憶」, 『傳記文學』 第44卷 第5期, 第45卷 第1・3・4・6期.

韓國獨立黨 廣東支部, 『韓聲』 3, 1933.

『民國日報』(中國), 『中央日報』(中國).

김영범, 「韓國光復軍刊行《光復》의 獨立運動論」,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7.

정병준, 「해제」,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3(한국독립당 1), 국사편찬위원회, 2009.

趙凡來, 「韓國國民黨 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0.

조범래, 『韓國獨立黨研究 1930~1945』, 선인, 2011.

조범래, 『韓國獨立黨研究(1930~1945)』,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최기영, 「李斗山の 在中獨立運動」, 『한국근현대사연구』 42,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한상도, 『韓國獨立運動과 中國軍官學校』, 문학과지성사, 1994.

韓詩俊, 「上海 韓國獨立黨研究」, 『龍巖車文燮教授華甲紀念 史學論叢』, 新書苑, 1989.

韓詩俊, 「중국 관내 독립운동과 신문 잡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8.

韓哲昊, 「1930년대 전반기 한중연대와 항일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2, 한국근현대사학회, 2002.

* 이 논문은 2015년 8월 28일에 투고되어,
2015년 9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5년 9월 2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5년 10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Publication of “*JINKWANG*” by Korean Independence Party and Sino-Korean Solidarity in the Period Struggling against Japanese Aggression

Park, Sungsoon*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in China published several newspapers and magazines to propagat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s and to lead Sino-Korean solidarity. Through the publication, they tried to gather together supporting forces for Korean independence movements.

“*JINKWANG*” was an official magazine of Korean independence party published in Hangzhou on January, 1934 at first. The purpose of “*JINKWANG*” was to suggest theories and methods of anti-Japanese strategy for Korean groups and to advise mutual solidarity between Sino-Korean people.

“*JINKWANG*” was published in two tracks like these. This paper focused on the Sino-Korean solidarity over the publication of “*JINKWANG*”. This paper treated on firstly how wa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and Chinese over the publication of “*JINKWANG*”, secondly what was the stance of Chinese in Chinese national party about Sino-Korean solidarity, and thirdly what was the contents of Sino-Korean solidarity issued by Korean independence party.

Korean independence party also wrote the theory of Sino-Korean solidarity in Oriental philosophical standpoint. They insisted that if it was compared to universal principle, Sino-Korean solidarity was inevitable stream in the nature that human-being couldn't stop. The executives of Chinese national party also insisted that Sino-Korean solidarity was the needs of the times although we didn't mention that China and Korea had intimate relationship from earlier times.

Chinese national party supplied the publication of “*JINKWANG*” with money and their own printing machine in their newspaper publishing company. The reason why Chinese national party helped the publication of “*JINKWANG*” was because they agreed for Sino-Korean solidarity was very important to fight Japanese imperialism. The theory of Sino-Korean solidarity over “*JINKWANG*” shows us that it was a consistent and common strategy for Sino-Korean people to struggle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Key Words] Bulletins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rgans, “*JINKWANG*”, Korean independence party, Chinese national party, Sino-Korean solidarity

* Assistant Professor, Dankook University